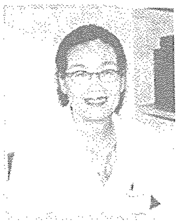
# "세상에서 지는 별은 하늘에서 뜨는 별이다"



박 승 예 (하늘다리호스피스 실무책임자)

어제도 . 오늘도 .. 지금도 ...
우리들 주변에서는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머니 같으신 000교수님 가정에 슬픔은 지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고인은 슬퍼하는 지상의 남아 있는 이들에게 그리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남아있을 님입니다.

사랑했던 사람들 가슴속에 잊혀질 수 없이 남아있을 님입니다.

지내온 삶의 현장속에서 언제나 사랑으로 남아있을 님입니다.

이곳 저곳에 남겨 놓으신 흔적들을 보면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워하며 남아있을 님입니다.

시시때때로 그 일자리엔 그리움으로 깊숙이 남아있을 님입니다.

남편의 빈자리, 아버지의 빈자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그 빈자리를 세상 것으로 말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무엇으로 채우시길 모두는 원하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000교수님의 떨어진 한쪽 팔에는 주님의 강하신 팔로 이식수술을 해주실 것입니다. 아픔의 흔적으로 더 강하게 더 완전하게 더 힘있게 더 새롭게 더 뜨겁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신 후에 곁에 계신 그 분께서 늘어진 어깨를 올려 세우실 것입니다. (습3 : 16-17)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많은 이들의 현장소리는 "큰 별이 떨어졌다." 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소리는 한 마음에서 나오는 한 목소리 일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소식을 들은 모든 이들이 인정하는 소리였습니다 !

순간 나는 "세상에서는 지는 별 일지라도 하늘에서는 뜨는 별이다" 그렇지! 하늘에서는 큰 별로 떠올랐을 고인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000 교수님의 빈자리에 전국 호스피스가족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주님의 깊은 마음으로 애도를 드리며 사랑으로 채워드립니다.

000교수님! 새로운 파트너 예수님과 함께 다시 쏟아 놓으시는 열정을 모든 사람들은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